
APEC 내 아시아·태평양 정보사회 (Asia·Pacific Information Society) 비전 구축 동향

정보통신협력연구실 APII협력센터 연구원 안상은
(T. 570-4213, sangeuna@kisdi.re.kr)

1. 브루나이 목표: APEC 역내 인터넷 접근성 확산

해마다 11월 20일 경이면, 각 국 정상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 손을 흔들고 있는 사진이 언론 지상을 장식한다. 이는 매해 11월 3주차 경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회원경제체 정상들이 당해 개최국 전통 의상을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행사로서, 미·중·일·러를 포함한 여러 강대국이 포함된 아태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많은 정상들이 함께 하는 자리이다. 이들이 모이는 계기가 되는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밀해지는 상호의존도에 대응하기 위해 1989년 창설된 지역협력체로서, 지속적인 지역 및 세계 발전을 목표로 경제적 역동성 제고를 위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역내 균등개발 및 경제격차 해소를 위한 경제기술협력에 힘쓰고 있다.

APEC은 회원경제체 간 다양성 및 자발성을 존중하여 느슨한 형태의 협력 체제를 기치로 내걸면서, 정상급, 각료급, 고위급, 전문가급 등 각급 회의 간 격식없는 회의를 추구하여 인간적인 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회의체(forum)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전세계 GDP의 56%, 교역량의 49%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서,¹⁾ 그리고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조류인플루엔자 등 공동현안 발생 시, 지역협력 증진을 위한 최고의 정책공조의 장으로 인정받으면서 점차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APEC 회원경제체 정상들은 2000년 브루나이 다루살람(Brunei Darussalam)에서의 회담을 통해 '브루나이 목표'(Brunei Goals)²⁾를 채택하였다. 역내 주민 모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각 분야의 과제를 채택한 브루나이 목표는 IT와 인터넷이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2010년까지 모든 회원경제체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성을 확보하여 개인 혹은 커뮤니티 기반의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할 것을 기약하였다.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해, 먼저 2005년까지 역내 인터넷 접속률을 3배 이상 증가시키는 단기 목

1) APEC Outcomes and Outlook 2006·2007, p.5.

2) 2000 APEC Economic Leaders' Declaration: Delivering to the Community, Bandar Seri Begawan, Brunei Darussalam, 16 November 2000, www.apec.org

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 및 단계별 점검의 과제를 역내 IT 분야 전문가들의 그룹인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APEC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TEL)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2. APII: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확산

APEC 내에는 분야별 논의가 별도로 진행되는 각급 회의 중에서도, 전문적인 견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분야별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11개 실무그룹(Working Groups) 회의가 상설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정보통신 분야는 1990년 설립된 정보통신실무그룹이 정보통신 관련 정책 자유화 및 규제, 인프라 개발, 정보보호 및 인적자원개발 등의 이슈별 협력을 활발히 주도, 정상 및 각료들의 성과 치하 및 인정을 받아왔다.

TEL이 매해 봄, 가을 두 번의 회의를 통해 반년 간의 활동 성과를 정리한다면, 2~3년에 한 차례 개최되는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APEC Ministerial Meeting on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dustry, TELMIN)는 그간의 활동 성과를 정리, 치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APEC TELMIN은 1995년 5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96년 9월 호주 골드코스트, 1998년 6월 싱가포르, 2000년 5월 멕시코 칸쿤, 2002년 5월 중국 상하이, 2005년 6월 페루 리마에서 각각 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총 6번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TELMIN은 무엇보다 APEC 역내 정보통신 분야 정책 발전 방향을 최종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95년 이래 십 여 년 간, TELMIN 및 TEL 활동의 방향타가 되어온 기준은 1995년 TELMIN1 회의(1995. 5. 29~30, 대한민국 서울)에서 발표된 『서울 선언문』(Seoul Declaration)³⁾으로, 이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 인프라(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구축’을 골자로 하여 APII 5대 목표(Objectives of APII)와 APII 10대 원칙(Principles of APII)을 선언하였다. TEL은 이 목표 및 원칙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추구함으로써, APEC 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나서 역내 정보통신 협력을 주도하며 교역 및 투자증진·자유화에 공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APII 5대 목표

- 상호접속 및 연동가능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산
- 정보통신 인프라 발전을 위한 회원체 간 기술협력 장려

3) *Seoul Declaration for the 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www.apectelwg.org 참조.

- 자율적·효율적인 정보 흐름 증진
- 인적자원 개발 및 교류 강화
- APII의 발전에 적합한 정책 및 규제환경 조성
- APII 10대 핵심원칙
 - 회원체 실정에 맞는 자체적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장려
 - 경쟁 주도 환경의 증진
 - 기업 및 민간부문의 투자 및 참여 장려
 - 유연한 정책 및 규제체계의 조성
 - 회원체 간 협력 강화
 - 선진국과 개도국간 정보통신 인프라 격차 축소
 - 국내 법규에 상응한 정보제공자 및 이용자의 공개적·비차별적 공중통신망 접근 보장
 - 공중통신서비스 공급 및 접근의 보편성 보장
 - 문화 및 언어 다양성을 포함한 콘텐츠 다양성 증진
 - 지적 재산권,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보호·보장

3. APII에서 APIS(Asia Pacific Information Society, 아·태 정보사회)로

앞서 본, 브루나이 목표와 APII 목표 및 원칙은 지난 17여 년 간 APEC 내 정보통신실무 그룹, APEC TEL이 수행해온 활동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브루나이 목표가 설정한 1차 목표 기한인 2005년, 인터넷 접속률 3배 증가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2.5배 이상의 증가와 회원체별 뚜렷한 증가 현상을 보고하면서,⁴⁾ TEL은 브루나이 목표와 APII 원칙 등이 강조하는 기존의 정보통신 인프라의 확산 및 보급에 초점을 둔 활동만으로는 브루나이 목표 달성 자체 및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야기되는 문제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브루나이 목표 달성 1차 점검을 마친 2006년 이후, TEL은 APEC 역내 정보통신 환경은 회원체 간 IT 인프라 및 환경의 뚜렷한 역량 차이를 인식함과 동시에 역내 회원체들에게 미래의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할 일 등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비전 설정의 과제를 제기하였다.

그동안 정보통신을 둘러싼 기술 및 시장 환경의 급변과 이를 어떻게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그룹, 조직에서 논의되어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2003년, 2005년에 걸쳐 개최되어,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 자체를

4) *Internet Access Stocktake*, 2005. 8, DOC NO. TELWG32/DCSG/15, www.apectelwg.org 참조.

논의한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1, 2차 회의⁵⁾를 들 수 있겠다. UN 산하 최대의 정보통신 관련 국제기구인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가 주관한 WSIS I, II 회의는 IT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를 '정보사회'로 정의하도록 일조하였다.

APEC TEL이 브루나이 목표의 1차 점검을 완료하는 과정에서도 TEL에 참여하는 회원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APEC 역내에서 이제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확대·구축 및 이용의 확산 뿐만 아니라, IT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논의가 '아·태 정보사회 비전화'(The Vision of the Asia Pacific Information society)로서, 2006년 4월, 제33차 TEL 회의(캐나다, 캘거리)에서는 이러한 정보사회의 개념을 적용하여 APEC 및 APEC TEL이 향후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고 해나가야 할 일 등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APIS 비전화를 향후 TEL의 과제로 설정한 이후, 2006년 10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제34차 TEL 회의에서는 APIS 워크숍을 개최하였다.⁶⁾ IT 각 세부분야별 회원국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청하여, 정보사회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 주요 이슈로 분류될 안건들을 놓고,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보사회 개념을 각 회원국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정보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의 속성 및 변화상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워크숍 종료 후 전문가들은 APIS 비전 설정을 위해 꾸준히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의견이 고루 반영되도록 시일의 여유를 두고 소그룹 협의를 통해 비전의 구체적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2007년 4월, 필리핀 퀘존시티에서 개최된 제35차 TEL 회의에서는 그간 워크숍과 소그룹 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APIS 비전 초안이 발표되었다.

4. 아시아·태평양 정보사회 비전(The Vision of the Asia Pacific Information Society)⁷⁾

APIS는 누구나 언제든, 어디에서든, 인터넷 및 유무선 통신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일컫는다. 이는 브루나이 선언이 설정한 대로 2010년까지

5) WSIS I, II와 관련된 정보는 <http://www.itu.int/ws/index.html> 참조.

6) 제34차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회의(2006. 10. 23~27, 뉴질랜드 오클랜드) 중 APIS 워크숍 관련 정보 및 문서에 대해서는 www.apectelwg.org 참조.

7) 본장 내용 전체는 제35차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회의(2007. 4. 22~27, 필리핀 퀘존시티)에 제출된 APIS 비전 초안임. DOC NO. TELWG35/DSG/025

누구에게나 보편적 인터넷 접속을 가능케 한다는 목표를 달성한 후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주류 사회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 및 응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ICT가 기본적인 사회 기반으로 자리 잡으면서, “범용” 기술로서의 ICT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APIS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ICT 인프라 개발(Developing ICT infrastructure): 유무선 통신 및 인터넷은 아시아·태평양 역내 지리적·인류통계학적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 2) 누구나 접속 가능하도록(Ensuring Accessibility for All): 더 많은 사람이 ICT에 접속할 수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훈련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ICT 기자재 및 서비스는 연령, 성별, 능력과 관계없이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보편적” 접속이란, 노령·지체부자유 등의 사유와 관계없이 모두가 ICT 기자재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이의 사회적 활용에 쉽게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한다.
- 3) 사용자 견해 반영(Incorporating Users' Perspective): ICT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과 공급에 있어 기존의 공급자 중심 입장이 사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점차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온라인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문화 교류와 가치 및 경험의 공유를 통해 이 과정에 역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 4) 새로운 활동 양식 창출(Changing the Way We Operate): APIS는 비즈니스 및 각종 서비스, 사회·경제 활동 참여의 새로운 양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교육, 서비스, 교통, 의료 보건, 재해예방, 긴급재난 대비, 정보 조달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활동 양식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 5) 생활 안보/안전에 기여(Ensuring Safety and Security): APIS의 회원경제체들은 자연 재해, 긴급 의료 상황, 비상사태 시, 긴급경보의 전달 및 비상대책 및 복구 등에 ICT를 활용하여 대응방식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신기술이 점차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게 됨에 따라,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온라인 환경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 사생활 존중, 유해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방화벽 강화, 불법 온라인 비즈니스 퇴치 등이 확보되어 네트워크 및 통신인프라 등의 사이버 안전이 보장된 환경이 요구되고 있다.

- 6) 공공/민간 부문 간의 협력 강화(Strengthen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 간 협력의 강화는 APIS 비전 목표 달성을 더욱 앞당길 것이다.
- 7) 정책 과제 제안(Addressing Policy challenges): 정책 및 규제는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미래 지향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또한 혁신과 경쟁을 격려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조만간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은 각 회원국 및 국제사회가 다양한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정책 및 규제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APEC TEL은 회원경제체들이 APEC 역내 이러한 방안을 실행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 및 수립, 사업 실행을 적극 지원해왔다. 이와 같이, APIS는 ICT 투자 및 확산에 더욱 박차가 가해질 수 있는 정책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ICT 성장 및 발전을 통한 역내 경제 통합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5. 결어: APIS 비전 구축 가능성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현재 제안된 APIS 비전 초안은 정보사회의 ICT 활용 방안과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특징들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정보사회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달성 후 도래한 사회적 모습이 혼재되어 있는가 하면, ICT 인프라 개발, ICT 기술 활용, 정책 규제, 사회 활동 양식 등 다양한 수준 및 범위의 개념을 구분없이 혼용하여 설명하는 등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없이 두서없는 기획안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서로 다른 경제 환경에 있는 전체 회원경제체가 동시에 APIS 비전을 구현하는 것에 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여러 회원경제체에 의해 제시되었다. 특히, APEC 역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 환경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과 2005년까지 인터넷 접속 3배 증가 및 2010년까지 역내 전주민에게 인터넷 접속 보급이라는 브루나이 목표의 달성조차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은 APIS 비전을 구축함에 있어 중요한 반향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APII 목표 및 원칙의 이행 상황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의의 재검토를 통해, 정보사회로의 목표 전환의 유효성 여부를 다시 점검해보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참고자료:

- [1] The APEC Secretariat, APEC Outcomes and Outlook 2006 · 2007.
- [2] 2000 The 8th APEC Economic Leaders' Declaration: Delivering to the Community, Bandar Seri Begawan, Brunei Darussalam, 16 November 2000, http://www.apec.org/apec/leaders_declarations/2000.html
- [3] 1995 The 1st APEC Ministerial Meeting on the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dustry: Seoul Declaration for the 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

ture, www.apectelwg.org

[4] APEC TEL DOC NO. TELWG32/DCSG/15, Internet Access Stocktake, 2005. 8.

[5] <http://www.itu.int/wsis/index.html>

[6] APEC TEL DOC NO. TELWG35/DSG/025, Vision of APIS, 2007. 4.